

‘고가장비 헐값 처분’...전남 출연기관 장비관리 허술

전남TP, '14억짜리' 고철 둔갑 판매 8개 센터 장비 40%는 내구연한 지나 녹색연구원, 장비 83% 노후화 방치 최선국 '미래에너지산업 선도 의문'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세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몰래 헐값에 내다팔거나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장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도가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행된 전남테크노파크 고정자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14억원 상당의 고가 기계장비 부품 일부를 990만원에 무단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09년 1월 구입 당시 8억7500여만원이었던 이 기계는 201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5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성능 개선을 통해 그 가치가 올랐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기계가 정상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기계 일부가 훼손, 부품 중 일부를 고철로 분할한 것처럼 꾸며 몰래 내다판 것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원장 승인도 누락된 것이 드러나면서 관련 직원들은 현재 업무상형

량과 배임죄로 순천경찰서 수사를 받고 있다.

고가의 장비를 비밀리에 거래한 것과 더불어 전남테크노파크 내 8개 센터에서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장비 273대 중 40.6%에 달하는 111대는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전반적인 기계 장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장비의 가치는 무려 847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장비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유장비 18종 중 83.3%에 해당하는 15종이 이미 내구 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4개는 고장으로 인해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11종 또한 저활용 상태다.

연구원이 태양광과 해상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산업 선도 모델을 만들고, 기업육성과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장비 관리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전남테크노파크는 멸종한 장비를 팔아 여론에 오르내리는 반면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기본 장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관리 실태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경우 장비 가동률과 운영수익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갈 기관으로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연구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전남테크노파크에서도 내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 산하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 산하 기관 간 연구자산 통합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김광진 전 광주 부시장 고액 출연료는 특혜”

시의회, 글로벌광주방송 행감 의원들 “한달 600만원대” 질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글로벌광주방송(GGN·옛 광주영어방송)에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것은 특혜성이고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광주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오전 광주시 출연기관인 글로벌광주방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박희을 의원(남구3·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부시장이 하루 1시간 주 5일 방송하면서 한 달에 600만원대의 출연료를 받고 있어 특혜로 보일 수 있다”며 “시민 혈세로 운영하는 글로벌광주방송이 특정 인사의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임석 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광주방송이 자체 혁신을 위해 김 전 부시장이 진행하는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했는데, 이게 혁신안이나”고 따져물었다.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옛 영어방송때부터 경영 위기 등을 파악했을 김 전 부시장이 광주를 사랑하고 영어방송(GGN)을 살리려고 했다면 스스로 출연료를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시장이 신임 사장 공개모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귀순 의원(광산구4·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부시장은 7월11일 GGN 임원추천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사장 후보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29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며 “윤도한 사장과 김 전 부시장은 정외대 근무시절 서로 아는 특수 관계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존폐 기로에 놓였던 영어방송이 김 전 부시장에게 마음껏 퍼주고 있다. 엄연한 특혜”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안평환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4명 모두 김 전 부시장의 고액 출연료를 문제 삼았다.

윤도한 GGN 사장은 “사장 취임 전 김 전 부시장의 출연료 책정이 이뤄졌으며 타 방송과 비교해 출연료가 적정인지 검증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전 부시장은 GGN '김광진의 오마이광주'에 출연하며 10분당 5만원, 1시간 동안 30만원, 매월 6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의 출연료는 GGN 규정상 10분당 4만원을 지급하는 '특급' 등급보다 1만원이 높으며, 이는 GGN 개국 이래 처음이다.

정성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광주 임택 동구청장과 동부경찰서, 동부녹색어머니회 등이 6일 동구 지산2동 동산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갖고 있다.

광주 임택 동구청장과 동부경찰서, 동부녹색어머니회 등이 6일 동구 지산2동 동산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갖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박선준 도의원 “전남 해수담수화, 방사능 안전성 우선돼야”

전남도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식수사업과 관련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2·사진)은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식수에 대해 즉



각적인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담수화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직접 사용하기 힘든 바닷물을 염분 제거 등을 통해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처리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남은 현재 여수, 완도, 진도, 신안 등 4개 시·군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수담수화 식수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입한 베타핵종(삼중수소 등) 분석 장비를 이용한 즉각적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섬지역 수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홈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